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10 201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마태복음 · 마가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2 10월 일정표

4 매일묵상 사용안내

6 기도제목표

7 매일묵상 Q.T.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16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전교인	3 전교인	4 12교구	5 9교구	6 17교구	7 6교구	8 전교인
9 전교인	10 전교인	11 18교구	12 3교구	13 16교구	14 8교구	15 전교인
16 전교인	17 전교인	18 11교구	19 5교구	20 13교구	21 14교구	22 전교인
23 전교인 제5차 학습세례식	24 전교인	25 10교구	26 4교구	27 15교구	28 7교구	29 전교인
30 전교인 종교개혁주일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10월 23일(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30일(주일) 종교개혁주일

10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펴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기 도 제 목

1.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4.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6.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7.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8.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9.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게 하소서.
10.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1 토요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본문 **마태복음 22:15~22** 찬송가 **433장**

››› 본문 해설

22장 앞 본문에서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 이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을 사모하기는커녕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칭찬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함을 꾸짖으시며 외식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함이기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27절에 나오는 말씀, 즉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고, 그들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카이(Kai)'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더욱 강조하는 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니?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아니? 그렇다면 너와 너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담긴 말씀입니다.

››› 기도 제목

외식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과 눈물로 나아가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
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
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
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
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
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
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
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 주 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본문 마태복음 22:23~33 찬송가 170장

》》》 본문 해설

사두개인은 다윗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왕상 1:32)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는 부인하였던 종파였습니다(행 23:8).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두개인이였는데 이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 복음과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와 세상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혼인법에 관한 것입니다. "칠 형제 중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일곱이 다 그렇게 죽었으면 부활 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비유를 들며 천국으로 초청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초청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을 책잡는 것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아시기에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삶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들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 같아 보이지만 안개같이 없어질 인생의 무대 속으로 각자의 역할을 주신 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이는 아내나 남편으로, 어떤 이는 종이나 왕으로 …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대로 각자의 삶을 맡겨주실 때, 삶의 감독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인생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역할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남·여우 주연상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영원한 부활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3 월요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본문 마태복음 22:34~46 찬송가 218장

》》》 본문 해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몰려왔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율법사란 소위 율법을 전공한 사람으로 성경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하러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배운다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즉 '들으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다면 너희는 크고 첫째 되는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웃 사랑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말입니까? 첫번째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 수고와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해도 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사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4 화요일 사람에게 보이고자

본문 마태복음 23:1~15 찬송가 212장

》》 본문 해설

23장의 내용은 22장 41절에 이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주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23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존경하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생활이 기준인 것처럼 행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외의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도 못 지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것처럼 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높임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분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온 맘을 다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도리어 섬기고 낮아지라고 주님은 가르쳐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
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
지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 그들의 모든 행
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6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
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
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화 있을진저 외식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
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
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
게 하는도다 14 (없음)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
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이 되게 하는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5 수요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본문 마태복음 23:16~28 찬송가 217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입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사랑함과 진실함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며 인도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성전에 갖다 놓은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 십일조만 교회에다 내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다들 본질을 놓치는 자들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금덩어리를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덩이를 '성전'에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이것저것 지적 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먼저 선행해야 할 상황을 가르쳐주십니다. 바로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무단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의 행함도 온전해지고 깨끗해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 맘에도 없는 외식과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십일조도 드리되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회개를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어 사유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6 목요일 의인 아벨의 피

본문 **마태복음 23:29~39** 찬송가 **346장**

》》》 본문 해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악행을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대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잘 대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그 가식과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가장 의롭고 거룩하여 모든 백성의 존영을 한 몸에 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맘 속 깊이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벨의 피로부터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누구에 의해 왜 순교 당한지 아십니까? 형 가인에 의해서 순교 당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동생 아벨이 위선과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형 가인에 의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를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다른 종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과 외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가 거짓과 위선으로 예배드린 자에 의해 최초로 죽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반드시 피를 흘린 자들의 대가가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므로 그 저주를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주님께서 자녀를 모으려 할 때에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옵소서.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
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
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
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
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
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
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
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
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
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
대에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
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
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
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
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7 내 이름 때문에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24:1~14**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말세에 대한 교훈이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휘황찬란한 건물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의 본질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도둑만이 득실거리는 소굴임을 아시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도 행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파괴된 성전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으므로 눈으로 보이는 성전마저도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그 시대 상황에서 해석해야 하며, 둘째는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후 70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내용으로 동시에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심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진실이 거짓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죽어나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 내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취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을 전하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8 토요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본문 마태복음 24:15~31 찬송가 356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마지막인 줄 알고 도망하여 환란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주석자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들이라서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목회자가 교회 강단을 누비며 설교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음 이외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 강단이 '거룩한 곳'인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할 거룩한 교회 강단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자기의 종들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고난과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믿지 말고 번개가 한 순간 번쩍임 같이 일시에 재림이 이루어짐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소리 듣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멸망의 가증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 주 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본문 **마태복음 24:32~51** 찬송가 **176장**

》》 본문 해설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속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과 때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날과 때를 말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날과 때를 이야기 하거든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며 나의 삶을 점검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마지막 재림 때라 여기며 도망가거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마음이 빼앗긴다면 이 또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가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같은 삶의 환경에서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때를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기를 요청하는 주님의 배려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날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깨어 준비하고 순종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날에 상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울며 이는 가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날마다 오늘을 주님 만날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0 보라 신랑이로다

10 월요일 본문 마태복음 25:1~13 찬송가 175장

》》 본문 해설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충성된 종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천국의 식구가 되는 비유를 결혼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집의 식구가 되려면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입양이 되든지 또는 결혼하여 시집가거나 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식구로 성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결혼을 비유로 드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신부로 비유한 것은 순결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가 순결합니까? 전혀 순결과는 상관없는 죄 덩어리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은 절망적이고 처절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의가 내게 전가 되어 신부된 자의 정결케 됨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은 같은 환경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신다는 그 신랑이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바로 그 때에 신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졸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말씀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지는 내 몫인 것입니다. 오지도 않겠다는 신랑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신랑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미련한 자처럼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슬픔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1 화요일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본문 마태복음 25:14~30 찬송가 213장

〉〉〉 본문 해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각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명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두 명의 종은 장사를 하여서 아주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지만 한 명은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가진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결여된 이기심은 결국은 악하고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할 때 순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종들에게는 결산의 날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그동안의 장사한 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두 배를 남기게 되었고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 드렸지만,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히려 야단치시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첫 번째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천국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지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
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
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
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
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
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
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
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
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
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
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
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
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
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
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
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
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
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
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
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
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
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2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수요일

본문 마태복음 25:31~46 찬송가 218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두 부류로 정확하게 구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의 자리에 선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속하느냐 영원한 생명에 속하느냐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주로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도왔는가를 기준으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염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기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언도받았습니다. 결국,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
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
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
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
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
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
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
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
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
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
고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
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
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
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
라 하시니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
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
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
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
리니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가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3 내 장례를 위하여

목요일 본문 마태복음 26:1~13 찬송가 260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나 우연히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심에 순종한 참으로 온전한 순종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믿음의 길은 그곳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면서도 겸손히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속에 넘치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그곳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에는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영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위험하여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높이면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복도 함께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봉사의 모습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실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10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4 언약의 피니라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26:14~30 찬송가 270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셨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행위를 제거하셔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셔야 하셨기에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질 위험을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먹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실 피와 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 찢고 피 흘려 주심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고자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살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4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5 토요일 나를 부인하리라

본문 마태복음 26:31~35 찬송가 365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후 자신이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자신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앙의 삶이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열심이 있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코, 믿음은 내가 자신 있다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나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
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
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
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
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6 주 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본문 마태복음 26:36~46 찬송가 371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과 맞서 싸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죽을 지경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은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타락할수록 가볍게 여겨지고 우리가 성결에 가까울수록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타락한 습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고 하여도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을 입은 몸으로 대신 지신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망의 고통 앞에서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앙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안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울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주시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7 이루려 함이니라

월요일 본문 **마태복음 26:47~56** 찬송가 **516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인도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같이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본인이 살기 원했다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피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사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하여도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심을 보고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들 앞에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열심은 결국 어려움이 닥칠 때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없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47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8 네가 말하였느니라

화요일 본문 마태복음 26:57~68 찬송가 31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모든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증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심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뒤집어씌울 죄목을 찾았지만, 이 현장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였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더욱 강퍅해져 예수님에게 폭행과 심한 모욕적 언행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런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수치를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9 심히 통곡하니라

수요일 본문 **마태복음 26:69~75** 찬송가 279장

››› 본문 해설

베드로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종에게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의 맹세는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두 번째 부인에서는 맹세를 더하여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죄의 길로 들어서면 결국 점점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죄를 더하기 전에 늦지 않은 지금,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괴로워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그런 자신을 알면서도 사랑해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기억하고 곧 회개함으로써 그의 실패는 즉각적인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넘어졌을 때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0 목요일 죄를 범하였도다

본문 마태복음 27:1~10 찬송가 268장

》》 본문 해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불의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죽일 것인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사형을 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직분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없는 자를 팔아 넘겼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며 뒤늦게 뉘우쳤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성전 안에 내 던지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리는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재정을 담당하며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일시적인 탐욕에 져서 결국 비참한 삶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탐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언제든지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계함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거룩한 성도로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1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문 마태복음 27:11~26 찬송가 29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도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는 약간은 모호한 대답을 통해 빌라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왕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이사야의 예언처럼(사 53:7)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자신에 대해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민란과 살인과 강도짓을 한 진짜 죄인 바라바를 죽음에서 놓이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강도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비난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권력 유지와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권력과 시기심으로,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동질과 무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바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 기도 제목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능욕과 모욕을 잠잠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
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
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
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15 명절
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
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
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
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
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
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
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
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
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
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
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
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
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
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
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
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
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
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
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2 토요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본문 마태복음 27:27~44 찬송가 145장

》》 본문 해설

육체적인 고통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 주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며 온갖 인격적 모독과 멸시를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자존심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실행은 굳은 결심이나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인격적인 모욕을 묵묵히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신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 십자가의 세미한 고통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심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요 10:17~18).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40, 42~43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대로 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악한 마음은 아닙니까?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자존심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 가시관
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
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
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
고 나가니라 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
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
라는 곳에 이르러 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
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35 그들이 예
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
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
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
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
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
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
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
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3 주 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본문 마태복음 27:45~56 찬송가 143장

》》 본문 해설

한 낮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으로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스러워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방울의 긍휼도 받을 자격 없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멸망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외면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성전의 휘장을 통해 하나님 앞, 지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며 심판과 권능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매 주일,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알고 감격스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
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
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
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
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
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
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
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
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
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
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
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
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 중에
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
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도 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4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월요일 본문 **마태복음 27:57~66** 찬송가 149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여섯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막 15:43) 주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요 19:38)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후 자신을 드러내고 당돌하게(막 15:43)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숨고 도망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부르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비병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대로 굳게 무덤을 지켰지만 그 어떤 힘과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 지도 누구를 '주'로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힘을 다해 애쓰며 열심히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眞意)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당돌한 삶을 살게 하소서.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
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
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
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
라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
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
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
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
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
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5 화요일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본문 마태복음 28:1~10 찬송가 165장

》》 본문 해설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방문했지만(막 16:1)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 대신 빈 무덤과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하얀 옷을 입은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약속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죽음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인들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하던 그 여자들을 친히 만나 '평안하냐?' 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을 잃어 버리고 고민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여자들은 주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자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마 27:55~56, 60~6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 기도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삶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6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수요일 본문 마태복음 28:11~20 찬송가 498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노력과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골칫거리이며 회의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활을 왜곡하려고 갖은 술수를 다 동원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감추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난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왜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탄에게 매여 혼미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믿음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소망하게 하소서.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
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
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
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
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
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
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
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7 목요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 **마가복음 1:1~11** 찬송가 329장

》》 본문 해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로마인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주제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하신 설교나 대화나 말씀보다 하신 일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족보, 구약 예언의 성취, 율법 조항 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마음을 준비시켜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로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속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나에게 임한 복음이 우연이 아니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
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
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
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
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
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
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
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
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
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를 베푸시리라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
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
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
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8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금요일 본문 마가복음 1:12~20 찬송가 340장

》》》 본문 해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그의 자손들에게 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사탄의 시험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 기꺼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며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약 1:2~4, 12).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 앞에 와 있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에 '곧' 즉각적으로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명령이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과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집과 가정을 떠나 직업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선교지로 들어가는 전임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모든 관계와 가정과 일터가 사람을 낚는 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며 내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9 토요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본문 마가복음 1:21~34 찬송가 252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로 장로들의 전통을 인용하여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침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의 길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고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모든 악한 영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귀신들린 것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상처 입은 감정과 뒤틀린 관계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길 기도합시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온전한 치유와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국가와 세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 기도 제목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혼란을 씻기는 답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30 주 일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본문 마가복음 1:35~45 찬송가 505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뿐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바쁠 때에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됩니다.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실제화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나병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고쳐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외시키는 죄의 고통은 나병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이며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 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마치 공짜로 배불리 먹은 한 거지가 저기 가면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다른 거지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 기도 제목

복음이 필요한 내 주변의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전하게 하소서.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
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
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
으라 하시니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
고하사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
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
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31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월요일 본문 마가복음 2:1~12 찬송가 298장

》》》 본문 해설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당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치유사건을 대대적으로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 일로 더 이상 가버나움에 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잠시 피하셨습니다(막 1:45). 수 일 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고, 이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오게 되었습니다(1~4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뒤에 그를 향해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5~7절).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단 한 번도 죄 사함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이례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 용서에 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자(人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8~10절).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이심을 은밀하게 암시하는 단어였습니다(막 8:31; 9:9, 31; 10:33, 45; 14:21). 이처럼 예수님은 인자의 자격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 이후에 살아날 때에 비로소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질 것을 암시하시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울러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입증했습니다(10~12절). 그가 일어나 걸은 것은 죄 용서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살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죄 용서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
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
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
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
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
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
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
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
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
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
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
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
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
였다 하더라

》》》 묵상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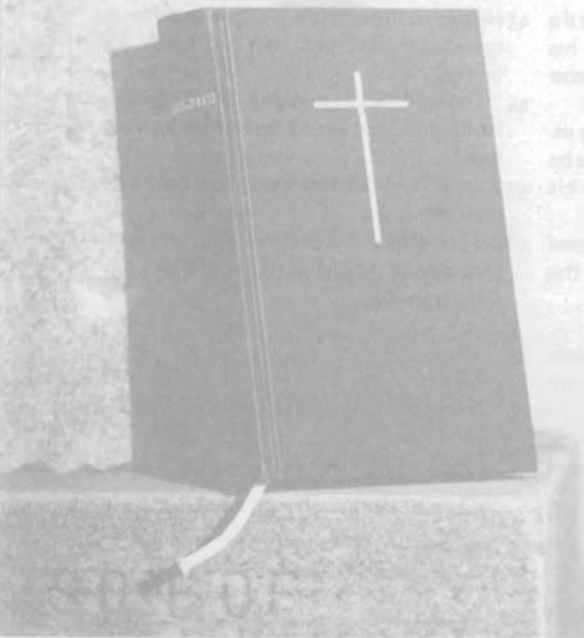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10월 1일 토요일

Matthew 22:15~22

15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16 They sent their disciples to him along with the Herodians. "Teacher," they said,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and tha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17 Tell us then, what is your opinion?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18 But Jesus, knowing their evil intent, said,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19 Show me the coin used for paying the tax." They brought him a denarius,
20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21 "Caesar's," they replied. Then he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22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amaze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10월 2일 주일

Matthew 22:23~33

23 That same day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24 "Teacher," they said, "Moses told us that if a man dies without having children, his brother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m.
25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among u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and since he had no children, he left his wife to his brother.
26 The same thing happened to the second and third brother, right on down to the seventh.
27 Finally, the woman died.
28 Now then,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of the seven, since all of them were married to her?"
29 Jesus replied,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30 At the resurrection people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31 But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have you not read what God said to you,
32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33 When the crowds heard this,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10월 3일 월요일

Matthew 22:34~46

34 Hearing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 Pharisees got together.
35 One of them, an expert in the law, tested him with this question:
36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37 Jesus repli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39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41 While the Pharisees were gathered together, Jesus asked them,
42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 son of David," they replied.
43 He said to them, "How is it then that David, speaking by the Spirit, calls him 'Lord'? For he says,
44 "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
45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46 No one could say a word in reply, and from that day on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10월 4일 화요일

Matthew 23:1~15

1 Then Jesus said to the crowds and to his disciples:
2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sit in Moses' seat.
3 So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But do not do what they do, for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4 They tie up heavy loads and put them on men'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lift a finger to move them.
5 "Everything they do is done for men to see: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wide and the tassels on their garments long;
6 they love the place of honor at banquets and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7 they love to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to have men call them 'Rabbi.'
8 "But you are not to be called 'Rabbi,' for you have only one Master and you are all brothers.
9 And do not call anyone on earth 'father,' for you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10 Nor are you to be called 'teacher,' for you have one Teacher, the Christ.
11 The greates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12 For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13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shut the kingdom of heaven in men's faces. You yourselves do not enter, nor will you let those enter who are trying to.
14
15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travel over land and sea to win a single convert, and when he becomes one, you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 are.

10월 5일 수요일

Matthew 23:16~28

16 "Woe to you, blind guides! You say, 'If anyone swears by the temple, it means nothing; but if anyone swears by the gold of the temple, he is bound by his oath.'
17 You blind fools! Which is greater: the gold, or the temple that makes the gold sacred?
18 You also say, 'If anyone swears by the altar, it means nothing; but if anyone swears by the gift on it, he is bound by his oath.'
19 You blind men! Which is greater: the gift, or the altar that makes the gift sacred?
20 Therefore, he who swears by the altar swears by it and by everything on it.
21 And he who swears by the temple swears by it and by the one who dwells in it.
22 And he who swears by heaven swears by God's throne and by the one who sits on it.
23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give a tenth of your spices--mint, dill and cummin. But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24 You blind guides! You strain out a gnat but swallow a camel.
25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they are full of greed and self-indulgence.
26 Blind Pharisee! First clean the inside of the cup and dish, and then the outside also will be clean.
27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are like whitewashed tombs, which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are full of dead men's bones and everything unclean.
28 In the same way, on the outside you appear to people as righteous but on the inside you are full of hypocrisy and wickedness.

10월 6일 목요일

Matthew 23:29~39

29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build tombs for the prophets and decorate the graves of the righteous.
30 And you say, 'If we had lived in the days of our forefathers, we would not have taken part with them in shedding the blood of the prophets.'
31 So you testify against yourselves that you are the descendants of those who murdered the prophets.
32 Fill up, then, the measure of the sin of your forefathers!
33 "You snake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being condemned to hell?
34 Therefore I am sending you prophets and wise men and teachers. Some of them you will kill and crucify; others you will flog in your synagogues and pursue from town to town.
35 And so upon you will come all the righteous blood that has been shed on earth, from the blood of righteous Abel to the blood of Zechariah son of Berekiah, whom you murdered between the temple and the altar.
36 I tell you the truth, all this will come upon this generation.
37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38 Look,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39 For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0월 7일 금요일

Matthew 24:1~14

1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walk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up to him to call his attention to its buildings.
2 "Do you see all these things?" he asked. "I tell you the truth,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3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4 Jesus answered: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5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Christ,' and will deceive many.
6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ut see to it that you are not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7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8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9 "Then you will be handed over to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ecause of me.
10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11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12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13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10월 8일 토요일

Matthew 24:15~31

15 "So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let the reader understand--
16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17 Let no one on the roof of his house go down to take anything out of the house.
18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19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20 Pray that your flight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or on the Sabbath.

21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22 If those days had not been cut short,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those days will be shortened.
23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24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even the elect--if that were possible.
25 See, I have told you ahead of time.
26 "So if anyone tells you, 'There he is, out in the desert,' do not go out; or, 'Here he is, in the inner rooms,' do not believe it.
27 For as lightning that comes from the east is visible even in the west,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28 Wherever there is a carcas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29 "Immediately after the distress of those days "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30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31 And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10월 9일 주일

Matthew 24:32~51

32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33 Even 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itis near, right at the door.
34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5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36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37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38 For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p 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39 and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40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41 Two women will be grinding with a hand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42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43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time of night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kept watch and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44 S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45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in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46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se master finds him doing so when he returns.
47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48 But suppose that servant is wicked and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staying away a long time,'
49 and he then begins to beat his fellow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with drunkards.
50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51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 the hypocrite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10월 10일 월요일

Matthew 25:1~13

1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en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2 Five of them were foolish and five were
wise.
3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4 The wise, however,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5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6 "At midnight the cry rang out: 'Here's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7 "Then all the virgins woke up and trimmed
their lamps.
8 The foolish ones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our lamps are going out.'
9 " 'No,' they replied, 'there may not be
enough for both us and you. Instead, go to
those who sell oil and buy some for
yourselves.'
10 "But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buy
the oil, the bridegroom arrived. The virgins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wedding banquet. And the door was shut.
11 "Later the others also came. 'Sir! Sir!' they
said. 'Open the door for us!'
12 "But he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13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10월 11일 화요일

Matthew 25:14~30

14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15 To one he gave five talents of money, to
another two talents, and to another one
talent,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on his journey.
16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went at once and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five more.
17 So also, the one with the two talents gained
two more.
18 But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went off, dug a hole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19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20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brought the other fiv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five talents. See, I have
gained five more.'
21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22 "The man with the two talents also cam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two
talents; see, I have gained two more.'
23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24 "Then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came. 'Master,' he said,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and gathering 25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25 So I was afraid and went ou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
26 "His master replied, 'You wicked, lazy
servant! So you knew that I harvest where I
have not sown and gather where I have not
scattered seed?
27 Well then,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with the bankers, so that when I
returned I would have received it back with
interest.
28 "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ten talents.
29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30 And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10월 12일 수요일

Matthew 25:31~46

31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he will sit on his throne in heavenly glory.
32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33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his left.
34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35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36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37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38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invite you in, or needing clothes and clothe you?
39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40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41 "Then he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Depart from me, you who are cursed, into the eternal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42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43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did not clothe me, I was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look after me.'
44 "They also will answer,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eeding clothes or sick or in prison, and did not help you?'
45 "He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not do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not do for me.'
46 "Then they will go away 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to eternal life."

10월 13일 목요일

Matthew 26:1~13

1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ese things, he said to his disciples,
2 "As you know, the Passover is two days away--and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be crucified."
3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assembl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whose name was Caiaphas,
4 and they plotted to arrest Jesus in some sly way and kill him.
5 "But not during the Feast," they said, "or there may be a riot among the people."
6 While Jesus was in Bethany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7 a woman came to him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she poured on his head as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8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indignant. "Why this waste?" they asked.
9 "This perfume could have been sold at a high price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10 Aware of this, Jesus said to them, "Why are you bothering this woman?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11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12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13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10월 14일 금요일

Matthew 26:14~30

14 Then one of the Twelve--the one called Judas Iscariot--went to the chief priests
15 and aske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hand him over to you?" So they counted out for him thirty silver coins.
16 From then on Judas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17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ere do you want us to make preparations for you to eat the Passover?"
18 He replie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tell him, 'The Teacher says: My appointed time is near. I am going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t your house.'"
19 So the disciples did as Jesus had directed them and prepared the Passover.
20 When evening came, Jesus was reclining at the table with the Twelve.
21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22 They were very sad and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the other, "Surely not I, Lord?"
23 Jesus replied, "The one who has dipped his hand into the bowl with me will betray me.
24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25 Then Judas,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said, "Surely not I, Rabbi?" Jesus answered, "Yes, it is you."
26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27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28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29 I tell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30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10월 15일 토요일

Matthew 26:31~35

31 Then Jesus told the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32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33 Peter replied,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34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35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10월 16일 주일

Matthew 26:36~46

36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7 He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38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39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0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one hour?" he asked Peter.
41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42 He went away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may your will be done."
43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44 So he left them and went away once more and prayed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
45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Look, the hour is near, 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6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10월 17일 월요일

Matthew 26:47~56

47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one of the Twelve, arrived. With him was a large crowd armed with swords and clubs, sent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48 Now the betrayer had arranged a signal with them: "The one I kiss is the man; arrest him."
49 Going at once to Jesus, Judas said, "Greetings, Rabbi!" and kissed him.
50 Jesus replied, "Friend, do what you came for." Then the men stepped forward, seized Jesus and arrested him.
51 With that, one of Jesus' companions reached for his sword, drew it out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ear.
52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him, "for all who draw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53 Do you think I cannot call on my Father, and he will at once put at my disposal more than twelve legions of angels?
54 But how then would the Scriptures be fulfilled that say it must happen in this way?"
55 At that time Jesus said to the crowd, "Am I leading a rebellion, that you have come out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Every day I sat in the temple courts teaching, and you did not arrest me.
56 But this has all taken place that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might be fulfilled." Then all the disciples deserted him and fled.

10월 18일 화요일

Matthew 26:57~68

57 Those who had arrested Jesus took him to Caiaphas, the high priest, where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had assembled.
58 But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up 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He entered and sat down with the guards to see the outcome.
59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false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60 But they did not find any,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Finally two came forward
61 and declared, "This fellow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62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and said to Jesus, "Are you not going to answer? What is this testimony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63 But Jesus remained silent. The high priest said to him, "I charge you under oath by the living God: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64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But I say to all of you: In the futur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65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and said, "He has spoken blasphemy! Why do we need any more witnesses? Look, now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66 What do you think?" "He is worthy of death," they answered.
67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68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10월 19일 수요일

Matthew 26:69~75

69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70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71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ther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72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73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74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75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10월 20일 목요일

Matthew 27:1~10

1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the decision to put Jesus to death.
2 They bound him,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the governor.
3 When Judas, who had betrayed him, saw that Jesus was condemned, he was seized with remorse and returned the thirty silver coins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4 "I have sinned," he said,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What is that to us?" they replied. "That's your responsibility."
5 So Judas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6 The chief priests picked up the coins and said, "It is against the law to put this into the treasury, since it is blood money."
7 So they decided to use the money to buy the potter's field as a burial place for foreigners.
8 That is why it has been called the Field of Blood to this day.
9 Then what was spoken by Jeremiah the prophet was fulfilled: "They took the thirty silver coins, the price set on him by the people of Israel,
10 and they used them to buy the potter's field, as the Lord commanded me."

10월 21일 금요일

Matthew 27:11~26

11 Meanwhile Jesus stood before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12 When he was accused by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he gave no answer.
13 Then Pilate asked him, "Don't you hear the testimony they are bringing against you?"
14 But Jesus made no reply, not even to a single charge--to the great amazement of the governor.
15 Now it was the governor's custom at the Feast to release a prisoner chosen by the crowd.
16 At that time they had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17 So when the crowd had gathered, Pilate asked them,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18 For he knew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19 While Pilate was sitting on the judge's seat, his wife sent him this message: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innocent man, for I have suffered a great deal today in a dream because of him."
20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to have Jesus executed.
21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asked the governor. "Barabbas," they answered.
22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Pilate asked. They all answered, "Crucify him!"
23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24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etting nowhere, but that instead an uproar was start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he said. "It is your responsibility!"
25 All the people answered, "Let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26 Then he released Barabbas to them. But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10월 22일 토요일

Matthew 27:27~44

27 Then the governor's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around him.
28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29 and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They put a staff in his right hand and knelt in front of him and mocked him. "Hail, king of the Jews!" they said.
30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staff and struck him on the head again and again.
31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crucify him.
32 As they were going out,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33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34 There they offered Jesus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after tasting it, he refused to drink it.
35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36 And sitting down, they kept watch over him there.
37 Above his head they placed the written charge against him: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38 Two robber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39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40 and saying,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41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ocked him.
42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He'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43 He trusts in God. Let God rescue him now if he want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44 In the same way the robber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10월 23일 주일

Matthew 27:45~56

45 From the sixth hour until the nin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46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47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id, "He's calling Elijah."
48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got a sponge.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49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50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51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52 The tombs broke open and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53 They came out of the tombs, and after Jesus' resurrection they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people.
54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terrified, and exclaim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55 Many women were there, watching from a distance. They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to care for his needs.
56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s, and the mother of Zebedee's sons.

10월 24일 월요일

Matthew 27:57~66

57 As evening approached,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58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and Pilate ordered that it be given to him.
59 Joseph took the body, wrapped it in a clean linen cloth,
60 and placed it in his own new tomb that he had cut out of the rock. He rolled a big ston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tomb and went away.
61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sitting there opposite the tomb.
62 The next day, the one after Preparation Day,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went to Pilate.
63 "Sir," they said, "we remember that while he was still alive that deceiver said,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again.'
64 So give the order fo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Otherwise, his disciples may come and steal the body and tell the people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is last deception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65 "Take a guard," Pilate answered. "Go, make the tomb as secure as you know how."
66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putting a seal on the stone and posting the guard.

10월 25일 화요일

Matthew 28:1~10

1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2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3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4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5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7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8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9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10월 26일 수요일

Matthew 28:11~20

11 While the women were on their way, some of the guards went into the city and reported to the chief priests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12 When the chief priests had met with the elders and devised a plan, they gave the soldiers a large sum of money,
13 telling them, "You are to say, 'His disciples came during the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14 If this report gets to the governor, we will satisfy him and keep you out of trouble."
15 So the soldiers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instructed. And this story has been widely circulated among the Jews to this very day.
16 Then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17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doubted.
18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10월 27일 목요일

Mark 1:1~11

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2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3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
4 And so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5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6 John wore clothing made of camel's hair,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And this was his message: "After me will com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8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9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10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11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10월 28일 금요일

Mark 1:12~20

12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13 and he was in the desert forty days, being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and angels attended him.
14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15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16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17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18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19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20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10월 29일 토요일

Mark 1:21~34

21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22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23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ried out,
24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25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26 The evil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27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obey him."

28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29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30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told Jesus about her.
31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32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33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34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10월 30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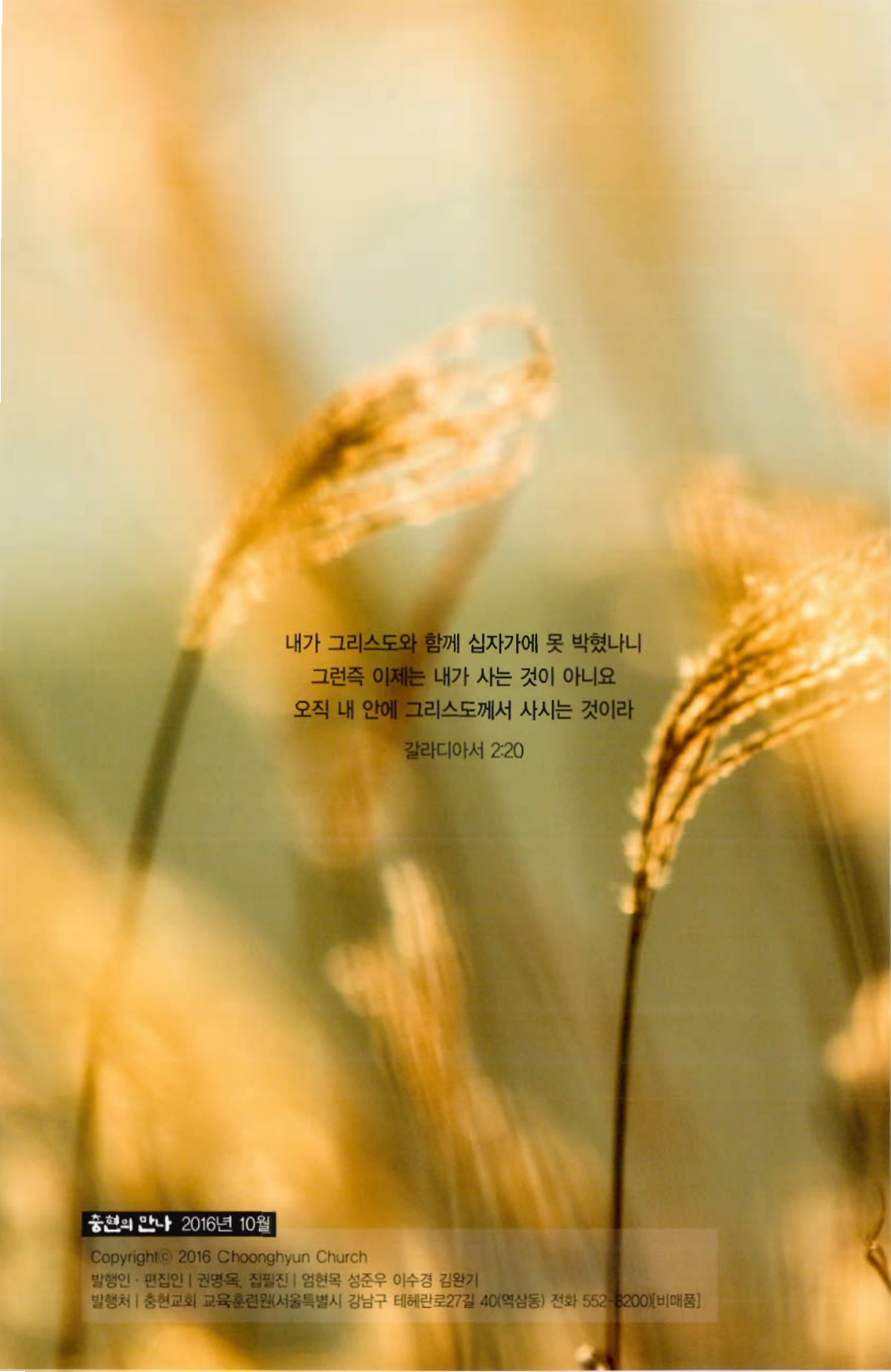
Mark 1:35~45

35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36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37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to the nearby villages--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39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40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41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42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ured.
43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44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45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

10월 31일 월요일

Mark 2:1~12

1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the people heard that he had come home.
2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3 Some me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of them.
4 Since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and, after digging through it, lowered the mat the paralyzed man was lying on.
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6 Now some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thinking to themselves,
7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He'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8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that this was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s,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9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take your mat and walk'?
10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 . . ." He said to the paralytic,
11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12 He got up, took his mat and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This amazed everyone and they praised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10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엄현옥 성준우 이수경 김완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3200)[비매품]